

“지역유일 종합경제단체 발전 헌신”

김대호 춘천상의 회장 연임

김대호 (주)대건 대표이사(사진)가 제24대 춘천상공회의소 회장에 연임됐다.

춘천상의는 19일 춘천라데나 골프클럽 라임홀에서 정기의원 총회를 열어 회장에 김대호 회장을 재선출했다. 김 회장과 고광만 (합)동양아이텍 대표가 후보로 나선 이날 신입회장 선출은 춘천상의 역사상 54년만에 첫 경선으로 치러졌다.

김 회장은 당선 인사말에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데 회원사 역량을 결집해 왔다”며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일자리 창출, 애로 해



결, 규제 해소 등을 통해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창립 77주년을 맞는 춘천상의가 지역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 발전하도록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이창동 (주)강원고속 대표, 최재경 (주)삼광기업 회장이 부회장으로 선임됐으며 박희홍 동일전력 대표와 유상현 유덕레미콘 대표가 감사에 선임된 것을 비롯해 14명의 상임의원이 제24대 임원으로 선출됐다. 전수산 전 회장은 명예회장, 박수복 전 대표는 고문으로 선임됐다. 남궁현기자

조기발주 급증 하반기 건설업계 위기감

도내 SOC 예산 전년 대비 30%
지난달 건설수주액 61% 증가
업계 "하반기 발주 급감 가능성"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내 건설업계 침체를 의식한 조기발주가 올해 초부터 급증, 표면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사상 최악의 위기가 덮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에 따르면 올

해 강원도 SOC 예산은 3182억 9400만원으로 전년(1조 376만 5600만원) 대비 70% 가까이 줄어드는 등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이 때문에 올해 강원도 건설경기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강원도내 건설수주액은 1058억 1672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4억 2921만원) 대비 61% 늘었으며 입찰건수는 지난달 전체 91건으로 전년 동기(92건) 대비 1건 줄어드는데 그쳤

다. 앞선 1월에도 도내 건설수주액은 531억 73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4억 5353만원)과 비교해 28% 증가하는 등 전문가들의 전망을 뒤집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올들어 두달 동안 도내에서 진행된 건설수주액은 1589억 2410만원으로 이는 올해 강원도 전체 SOC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규모여서 하반기로 갈수록 건설수주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고용시장도 건설관련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위축되고 있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달 도내 건설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5만 2000명으로 전월 대비 2000명 감소했으며 지난해 4월(6만 4000명)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줄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내 건설업계의 급격한 침체를 우려한 조기발주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조삼모사식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대응이 지속될 경우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하반기 발주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도은

김대호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연임

춘천상의 정기의원총회

이창동·최재경 부회장 선임



김대호(57·사진) 강원도상공회의소 협의회장이 23대 춘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연임됐다. 춘천상공회의소는 19일 춘천 라데나 골프클럽 라임홀에서 41명의 의원과 3명의 특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과 차기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2018년도 정기의원총회를 가졌다. 이날 신임 회장 선출에는 김대호 현 회장과 고광만 동양아이텍 대표가 후보로 추천됐으며 경선을 벌

인 결과 41표 가운데 24표를 얻은 김 회장이 연임하게 됐다. 또 이날 부회장은 이창동 강원고속 대표 이사와 최재경 삼광기업 회장이 선임됐으며 14명의 상임의원을 비롯해 박희홍 동일전력 대표이사와 유상현 유덕레미콘 대표이사가 감사로 지정됐다.

김대호 춘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해 강원도내 SOC 확대 건의와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회원사들의 교류 증진과 협업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은